

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샬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천지에 있는 이름 중(찬101/새80장)

기도 Prayer ..... All together 다같이

1부/조관휘 장로 2부/이근제 집사 3부/정병철 장로 4부/이유진 집사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내가 천사의 말 한다해도(Joseph M. Martin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누가복음(Luke) 9:57-62 ..... All together 다같이

4부/예레미야(Jer.) 18:1-6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Sanghyun Shim 심상현 목사

프론티어 예수 그리스도

4부 ..... Rev. Sanghyun Shim 심상현 목사

킨츠기(KINTSUGI) 하나님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하나님의 부르심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동사목사 칼럼
Pastor's Column

내 삶 속 '틈'

'Gaps' in My Life



황모세 목사 / Rev. Moses Hwang

요즘 저희 집 근처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연말이면 종종 마주하는 풍경이지만, 이번에는 '틈'이라는 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말 '틈'은 참 재미있습니다. 운동할 '틈'이 없다는 말에서는 시간을, 도로에 '틈'이 생겼다는 말에서는 공간을 뜻합니다. '틈'만 나면 딴짓을 한다고 할 때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단어를 묵상하며 삶에 필요한 세 가지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거룩한 틈'을 만드십시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지금만 지나면 한가해질 것 같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일로 가득 찹니다. 기다린다고 여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여유가 생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쁜 오늘, 쉼 없이 돌아가는 삶의 엔진을 잠시 끄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거룩한 틈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의 작은 결단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벌어진 틈'을 살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했습니다. 우리도 바쁨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의 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무관심을 방치하면 어느새 기도의 자리를 잃고 예배의 기쁨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마음의 틈을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셋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거룩한 틈'이 없는 분주한 삶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만들기 쉽습니다. 사자는 사냥감이 무리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그 순간 덮칩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벧전 5:8).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에는 거룩한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벌어진 틈은 없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틈은 없습니까? 도로의 틈을 메우는 작업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틈'도 다시 돌아봅시다. **틈! 틈! 틈!**

Lately, road repair work has been in full swing near my house. It is the work of filling cracks (gaps) in the asphalt. It is a scenery we often encounter at the end of the year, but this time, the word 'gap' particularly caught my eye. The Korean word 'gap'(teum) is very interesting. In the expression "having no gap to exercise" means time; in the expression "a gap in the road" means space. When people say that whenever they have a 'gap' they do other things means an opportunity. Contemplating this small word, three necessary life lessons came to mind.

First, **create a 'holy gap'.** We are always busy. We think that once this moment passes, we will have more time but tomorrow is filled with yet another task. Leisure, time, does not just find us because we wait. Do not postpone making time to meet God until after you have spare time. Turn off the engine of life that runs endlessly on a busy day and make time to stay before God through His word and prayer. A holy gap does not form on its own. It must be made intentionally. A day's small resolution can change the direction of your faith.

Second, **tend to the 'widened gap'.** Martha was close to Jesus, but she was anxious and busy with many things. When we are chased by busyness, our relationship with God can grow distant. If a small crack on the road is left unattended, water seeps through it, leading to greater damage. The gap of the soul is the same. If minor negligence is left unattended, before we know it, we can lose our place of prayer and even the joy of worship. Before it deepens, tend to the gap in your heart and return to God.

Third, **do not give a 'gap' to Satan.** A busy life without a 'holy gap' easily creates a 'widened gap between us and God. The lion waits and waits for its prey to stray from the herd and then pounces at that moment. The Bible compares the devil to a roaring lion (1 Peter 5:8). Satan also waits for us to drift away from God. Even if it is hard and exhausting, do not leave the embrace of God. Abide in the grace of the Lord and do not give a 'gap' to Satan.

Is there a holy gap in your life today? Is there a widened gap between you and God? Is there a gap yielded to Satan? Looking at the work of filling the gaps in the road, let us reflect once more on the 'gaps' in our lives. **A gap! A gap! A gap!**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심상현 목사

프론티어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9:57-62

적용하기

1. 첫째, 복음에 빚진 자(Gospel Debtor):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눅 9:57)
나는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2. 둘째, 내려놓음(Surrender):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 9:58)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안전지대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 물질, 인정, 익숙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3. 셋째, 미루지 않는 순종(Immediate Obedience):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눅 9:60)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뤄 온 순종의 영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지 나눠 봅시다.

4. 넷째, 프론티어 예수그리스도(Follow the Frontier, Jesus Christ):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눅 9:62)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보좌를 넘어 이 땅에 오신 참된 프론티어 이십니다. 나의 의지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에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 **적용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 후기
탄자니아

탄자니아, 그 땅에서의 예배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찾아가는 탄자니아 선교.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다려왔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우리의 완벽한 준비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치푸투카 오지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환대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넘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느끼는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척박한 환경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드려지는 아이들의 예배는 마치 시편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함께 지낸 사흘 동안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 속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가슴 아픈 기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환한 미소로 친근하게 다가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처음 찍어 보는 사진에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고, 복음 팔찌와 목걸이를 걸고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서성이며 예배하고 놀고 또 예배하며 기뻐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 속에서도 맨발로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던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마치고 오후가 되어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린 찬양과 예배는,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같았습니다. 또한 오늘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마음을 빼앗기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선뜻 나서기 어려운 길이었으나, 순종할 때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감사한 선교였습니다.

이효숙 권사

사역 간증
식당

식당팀 막내자리



토요일과 주일, 이른 아침부터 식당팀은 분주하게 시작합니다. 토요일에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주일에는 김밥 600개를 만들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많은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즐겁게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셀목자님이 식당 사역에 조인하여 같이 섬기는 것을 제안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와 설거지부터 시작하여 현재 막내로 매주 물에 손을 담그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종 삼아 고향집에서도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힌 적이 없는 불효자인 저에게 식당 설거지 봉사는 생각보다 버거워 실족하기에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는 손에서 빠지지 않는 쿰쿰한 고무장갑과 멸치다시 냄새 때문에 하루종일 손을 씻고 신발부터 머리까지 온몸에 설거지 물이 튀어 몽땅 빨래를 하였습니다. 혼자 마음으로 유난스럽게 사역을 하다보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졌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초보가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가장 무거운 국솥들을 혼자서도 최소 한의 물 튐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설거지팀에서 있으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였습니다. 모든 집사님들이 교회의 사역을 이미 열심히 섬기고 계셨지만, 저의 등 떠밀린 섬김을 의미 있게 보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가끔 실수로 설거지물에 스스로 세례 할 때면 과연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끝에 남은 진한 멸치 향은 좌절을 더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죄악된 세상을 설거지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분에게는 지저분할 텐데 우리에게 나는 죄의 냄새가 참기 힘드셨을 텐데, 동시에 방금 내가 먹은 음식 찌꺼기를 더러워하는 내 마음은 과연 얼마나하나님 앞에 위선적인가를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오늘도 설거지 후에 깨끗하게 바뀐 그릇처럼 말씀의 흐르는 은혜와 함께 섬김으로 깨끗하게 설거지 될 나의 영혼을 기대하며 식당 팀은 오늘도 힘차게 앞치마를 두릅니다. 식당팀 화이팅!!

이대영 집사



목회자 소개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Beyond the Blue(B+B) 가정회복치유사역을 섬기고 있는 오경희 전도사입니다. 2026년도 7월부터 베델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 가족과의 사별 또는 이별(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어서 뒤늦게 주님의 인도로 신학을 공부한 저는 Beyond the Blue 공동체에 참석하면서 제 안에 이혼으로 인한 쓴뿌리들을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Beyond the Blue 공동체는 전도사로서 첫 사역이기에 저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목사님, 팀장님과 봉사자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가을 학기 세미나를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3주간의 영상 세미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고, 때로는 배우자와 헤어져야 하는 경험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별과 이별 등 마음의 깊은 상처는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Beyond the Blue 공동체는 이러한 분들이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는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슬픔과 아픔을 가진 분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힘이 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Grief Share와 Divorce Care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단순히 상처를 위로받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세상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이 사역의 담당 전도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슬픔과 상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함께하는 담당 목사님, 팀장님, 참가자들, 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경희 전도사

사역 간증
예향

예수 향기를 배달합니다



작년 말에 운동 중 다리를 다쳐 집 밖으로 한 달을 나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셀식구들이 음식을 들고 찾아와 주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플 때 음식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알게 되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올해 초 MOD를 통해 예향사역에서 배달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세 번째 주 월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 부엌이 분주해집니다. 음식팀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7-9가지에 달하는 메인 요리, 밑반찬, 죽, 국, 김치류 등을 정성껏 준비하시면, 배달팀은 배달 상자에 담아 점심때 즈음 각자의 환우 집으로 배달합니다. 환우분이나 가족분들은 방문한 배달팀원을 환한 미소로 맞으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문자나 손수 쓰신 카드는 예향 단톡방에 공유되어, 우리를 통해 환우들에게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었음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격려를 받습니다.

한 번은 메뉴 하나가 빠진 채 배달이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한 후 바로 알게 되었지만, 운전 중인 권사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연락이 닿았을 때는 이미 한 집 배달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음식들이 만들어진 후 박스에 담겨 배달하는 분의 차에 실리기까지 관련되었던 모든 팀원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고, 서로 자신이 그 누락된 음식을 배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배송 중이던 권사님 또한 다시 돌아와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본인이 배달하겠다고 하여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소를 보니 집 근처라 제가 가게 되었는데, 음식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환우 가족분에게서 '한 가지 빠진 음식까지 챙겨 보내 주심에 무어라 감사를 표시해야 할지...'로 시작되는 감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과를 돌리며 서로 책임지려는 예향 배달팀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 사고라는 우리의 실수도 환우와 가족에게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고흔 집사

사역 간증
금다식

사랑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모여 정성껏 풍성하고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AWANA, 초등부 프로그램, 중등부와 고등부 모임, CIM 사역의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봉사자들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식사입니다. 그 이름하여 '금다식'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 역시 따뜻하게 차려진 식탁을 통해 자신들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 섬김의 중심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놓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섬김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따뜻한 환대는 말없이 전해지는 신앙의 증거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봉사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금다식의 영향력은 한 끼 식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은 믿음이란 꾸준한 돌봄과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배우고, 가정들은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경험합니다.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역시 공동체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매주 차려지는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가 특별하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일상의 신실함을 통해 확장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이 겸손한 섬김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공동체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기꺼이 함께 식탁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헌 집사



교회학교 소개
한어 중고등부(CIM)

다음 세대를 향해 함께 걷습니다

CIM은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프리실라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약 20여 명의 교사와 TA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CIM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 샬롬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금요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예배와 금요모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CIM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bilingual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삶과의 공동 프로그램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삶 공동체로 연결되고, 이후 장년예배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성장과 연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CIM은 단순히 청소년을 양육하는 한 부서를 넘어,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CIM을 섬기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이들을 통해 교사와 섬기는 이들도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진실하고 깊은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꺼이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CIM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들이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를 넘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 교사, TA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CIM이 품고 있는 소중한 비전입니다.

이준혁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헌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목사**
예삶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프리실라 레페브리에이 전도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베델교회는 청소년들 그룹으로 영어 중등부(BYM QARA), 영어 고등부(BYM HOLOS), 그리고 한어 중고등부(CIM)가 있습니다. 매년 BYM과 CIM의 많은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선교사와 목회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도 어김없이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별 QR 코드를 스캔하여 수련회 장소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2026년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여정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영어 중등부(QARA): 6–8학년〉
주제: I AM
일시: 12월 21일(월)–23일(수)
조기 등록: 10월 25일–11월 7일, $180
일반 등록: 11월 8일–22일, $200
장소: Pali Retreat(30778 Highway 18, Running Springs, CA 92382
문의: 현호승 목사 (949)677–4911

〈영어 고등부(HOLOS): 9–12학년〉
주제: With You
일시: 12월 21일(월)–23일(수)
조기 등록: 10월 25일–11월 7일, $180
일반등록: 11월 8일–22일, $200
장소: Oak Glen(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문의: 김한나 전도사 (909)837–7747

〈한어 중고등부(CIM): 6–12학년〉
주제: Better Together
일시: 12월 21일(월)–23일(수)
조기 등록: 10월 25일–11월 7일, $180
일반 등록: 11월 8일–22일, $200
장소: Pali Retreat(30778 Highway 18, Running Springs, CA 92382
문의: 프리실라 L. 전도사 (213)700–699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

11/15:	①부–조부연	②부–정낙성	③부–조광종	④부–이가현
11/22:	①부–주용중	②부–이제석	③부–황대경	④부–박창희
11/29:	①부–장지봉	②부–주진철	③부–홍승평	④부–정예린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월) | 11/14: 손세진 11/21: 전민혁 11/28: 전승윤 12/5: 김종곤

강단꽃(11월) | 11/8: 서은숙, 이선옥, 이성애 11/15: 장석우 11/22: 강정선, 서은숙, 윤주원, 주정숙 11/29: 이종선, 이미옥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형국(안과), 간호사–노성애 다음주 | 의사–박현진(한의과), 간호사–박수잔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4부 예배는 심상현 목사님(뉴욕 IN2교회)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황모세 목사와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11월 11일(수), 황모세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이 일곱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다윗 언약을 함께 공부합니다. 성경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의노트는 현장에서 배포되며, 유튜브 강의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11월 11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돌봄/문의: 유아 · 유치부 및 K-5학년 대상, 조광종 집사 (949)706-4168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믿음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1월 10일(화)-13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믿음 목장 (이형석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1월 14일(토) 오전 6시, 본당

◆ 103차 베델동산 봉사자 모집
103차 베델동산을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전 베델동산에서 은혜를 받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당 앞 부스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12월 18일(금)-20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장로 (949)232-0872

◆ Back to Bethel: A Homecoming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가족과 한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QR코드로 볼 수 있는 초대 영상을 활용해 주세요!
일시/장소: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 B2N 2차 모집 마감 B2N 2차 모집을 마감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여권 사본)와 참가비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 기도뱅킷
베델에 50년의 역사에 선교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50년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베델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증과 보고,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대상: 올해 선교팀장님들과 참가자,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환영
시간: 11월 14일 헵시바 기도회 후 오전 7:30분
장소: 비전채플

◆ 베델한국학교 봄학기등록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곳, 베델한국학교가 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한글학교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조기 등록 할인: 11월 14일(토) 오전 8시-11월 29일(주일) 오후 8시
신입생 및 일반 등록: 11월 30일(월) 오전 9시-12월 13일(주일) 오후 9시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황수정 집사 (949)562-5262

◆ BYM 중·고등부와 CIM 겨울 수련회 등록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여정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7면 참고)
기간: 12월 21일(월)-23일(수)
등록비: 조기 등록(10월 25일-11월 7일): $180, 일반 등록(11월 8일-22일): $200

◆ 정기 제직회
11월 21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3/4 분기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업데이트
이사하시거나 거처를 옮기신 이후에 미처 주소 변경사항를 교회에 알리지 못하신 경우에 변경된 주소를 헌금봉투에 기입해 주시거나 행정사무실에 오셔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문남수 성도님(문태성 목사의 모친, 문영선 사모의 시모)께서 11월 2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권국택 집사님(권성은 집사의 부친, 황지원 집사의 시부)께서 11월 5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노사숙 권사님(노승남(Kevin) 집사의 모친, 노하선(Diane) 집사의 시모)께서 11월 5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본당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Sanghyun Shim

Follow the Frontier Luke 9:57–62

Apply to Life

1. First, GOSPEL DEBTOR: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Luke 9:57)
Through whom did you hear the Gospel and come to believe? Share who the person is to whom you must now proclaim the Gospel and pass on the heritage of faith.

2. Second, SURRENDER: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Luke 9:58)
What comfort zone or precious thing you must lay down to fully follow Jesus? Share if there is anything—such as stability, material things, recognition, or a familiar environment—that you are relying on more than God.

3. Third, IMMEDIATE OBEDIENCE: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Luke 9:60)
Jesus tells us not to delay following the kingdom of God. For what reasons are you failing to respond immediately to the Lord's calling? Share what areas of obedience you have been putting off, and how you can immediately, fully, and joyfully obey the Lord's word.

4. Fourth, FOLLOW THE FRONTIER, JESUS CHRIST: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Luke 9:62)
Jesus is the true frontier who came down from the heavenly throne to this earth for our salvation. Looking to Jesus Christ,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rather than relying on our own willpower or circumstances—let's share what decision of faith we will put into practice this week for our families, the church, and the next generation.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The Calling Of God